

10년내 탈당 경력자 25% 감산·세대교체 바람 최대변수

주요 변수와 관전포인트

권리당원 투표가 경선 좌우 대선 결과도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코로나 지속엔 신인들 불리
광주, 초선 단체장들 재선 주목
전남, 5곳 재판 결과에 촉각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는 앞으로 1년이 남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당한 변수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이 텃밭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년 내 탈당 경력자 25% 감산' 적용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최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에 따른 정치 신인들의 '얼굴 알리기' 어려움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어닥친 '이준석 돌풍'도 향후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대선을 앞둔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대교체의 바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밖에 내년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로는 광주의 경우 5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초선인 만큼 이들의 재선 성공 여부, 그리고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른 도전 여부도 주목된다.

◇최고 변수는 경선 규칙·탈당 경력자 감산은? =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자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들과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들에게는 상당한 페널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하는데 이어 '합당'으로 인한 자동 복당자'에게도 감산을 적용하는 등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중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감산 대상자는 상당수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4년 탈당 경력자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에 해당되며, 전남의 경우 권오봉 여주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등 5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도전에 나서는 일부 입지자들 상당수도 과거 탈당 전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탈당 전력자들이 상당수인 것은 호남에 '안철수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으로 옮겨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



신복지 전남포럼 출범식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9일 전남 순천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신복지 전남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감산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당헌 101조)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등은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대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원 확보'가 경선 결과 좌우·당원 확보 전쟁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는 올해 초부터 연일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확보한 입당 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선 자신을 지지해 줄 권리당원 확보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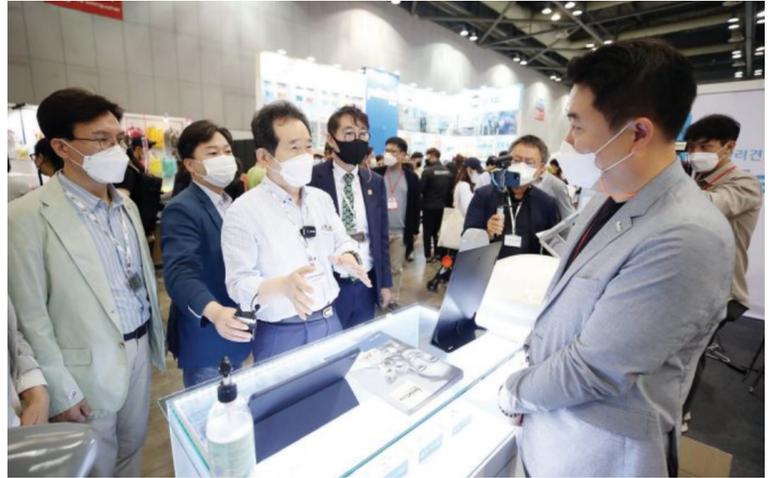
민주당 단체장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결과가 각각 50% 반영되고, 기초·광역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조사 결과가 100% 반영된다. 사실상 권리당원 표심이 경선 승패를 가르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 자신을 지지해 주는 권리당원 200~400명만 있으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지자들은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 단체장 모두 초선...재선 가능할까? =광주

의 경우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동·서·남·북·광산구청 등 5개 단체장 모두가 초선 단체장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선 성공 가능성이 주목된다.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현역이 시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의 경우 현재 단체장들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에서와 신상당해온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서대석 서구청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현재가 이를 인정하면서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다는 전망이다. 이에 6월24일 재개되는 재판을 통해 김 구청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 기초단체 2곳 무주공산...5곳 단체장은



K-펫페어 찾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안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펫페어(K-Pet Fair)를 찾아 참가 업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재판 결과 희비 갈릴 듯=전남지사 선거에는 김영록 현 전남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여기에 민주당 3선 의원인 이개호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 22개 단체장 가운데 현역인 최형식 담양군수와 이동진 진도군수는 3선을 끝으로 물러나면서 두 지역은 현역이 없는 '무주공산' 선거구가 돼 도전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은 5명으로, 이들 선거구도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정현복 광양시장은 가족 땅에 도로 개설을 했다는 이해충돌 논란과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정중순 장흥군수는 새조계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채용되

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신인들 약진 가능할까? =향후 코로나19 유행 여부가 정치신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제한되면 정치 신인들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비교하면 자신을 알리는 등 선거를 준비할 방법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의도치 않게 득권 벽을 더 높여주면서 크고 작은 지방권력의 물갈이 폭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돼 30대 당 대표가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쇄신과 변화요구가 더욱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세대교체 바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해충돌 의혹, 갑질 등의 행태가 연일 논란이 되면서 지방의원들의 대목 물갈이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입지자들의 도덕성, 능력 기준 등의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주공산 광주 자천타천 10여명 물망...전남, 장석웅 교육감·김대중 전 목포시의장 2파전 관측

시·도 교육감 선거는?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장휘국 현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10여 명의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낙마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입지를 착실히 다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지난 선거에서 패배했던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조만간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서도 다수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정성

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박재성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재남 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김선호 전 동아여중교 관선이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체후보'를 낼 지가 관심사다.

이 외에도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과 김홍식 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 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맡고 있

는 박해자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병완 전 국회의원과 경쟁도 관전포인트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장석웅 현 교육감과 '장만채 전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인 김대중 전 목포시의장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장 교육감이 여러 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재선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장만채 전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장 전 교육감이 '현 교육감의 재선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

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장 전 교육감의 핵심지지자 모임인 '전남교육 살리기 도민연합'이 최근 회동에서 장 전 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대중 전 목포시의장을 차기 교육감선거 후보로 추천하면서 사실상 전·현직 교육감의 대결로 비추진다. 김 전 의장이 현 교육감에 비해 인지도가 뒤지는 상황이지만 장 전 교육감이 지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성 기자 big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